



## 한국어와 태국어의 부치사 문법화에 대한 비교 고찰 - 거시적 유형론적 관점에서

A Comparative Study on the Grammaticalization of Korean and Thai  
Adpositions – From Macroscopic and Typological Perspectives –

---

<b>저자</b> (Authors)	박경은, 이성하 Park, Kyungeun, Seongha Rhee
<b>출처</b> (Source)	<a href="#">언어과학연구 86</a> , 2018.9, 69–95 (27 pages) <a href="#">The Journal of Linguistics Science 86</a> , 2018.9, 69–95 (27 pages)
<b>발행처</b> (Publisher)	<a href="#">언어과학회</a> The Linguistic Science Society
<b>URL</b>	<a href="http://www.dbpia.co.kr/Article/NODE07538063">http://www.dbpia.co.kr/Article/NODE07538063</a>
<b>APA Style</b>	박경은, 이성하 (2018). 한국어와 태국어의 부치사 문법화에 대한 비교 고찰. 언어과학연구, 86, 69–95.
<b>이용정보</b> (Accessed)	한국외국어대학교 203.232.***.186 2018/11/14 07:56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한국어와 태국어의 부치사 문법화에 대한 비교 고찰: 거시적 유형론적 관점에서\*

박경은 · 이성하(한국외국어대학교 / 교수)\*\*

Park, Kyungeun, and Seongha Rhee. 2018. "A Comparative Study on the Grammaticalization of Korean and Thai Adpositions: From Macroscopic and Typological Perspectives." *The Journal of Linguistic Science* 86:69-94. This paper investigates the adposition systems in Korean and Thai from comparative and grammaticalization perspectives. The two languages are genealogically and typologically distinct, but an analysis of the synchronic and diachronic patterns of the development of the two systems reveals a high level of commonality, which points to the universality of the human conceptual system. In contemporary adpositional systems, the two languages have rich inventories of grammatical case, locative case and non-locative case markers. With reference to the grammaticalization patterns, the two languages resort in common to the anthropomorphic model, exhibit contact-language influences, and recruit the mixed time-conceptualization mode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Key Words

문법화(grammaticalization), 부치사(adposition), 전치사(preposition), 후치사(postposition), 대조분석(contrastive analysis)

\* 이 연구는 2018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추가적으로 제2저자의 경우,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았음 (NRF-2014S1A5B1065578).

\*\* 주저자: 박경은, 교신저자: 이성하

## 1. 들어가는 말

모든 언어에는 문장 성분들의 문법적 역할을 표시하는 방법이 있다(cf. Moravcsik 1978: 251). 다만 문법적으로 표시하는 문법개념은 언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모든 언어의 문법이 동일한 정도로 복잡한지는 가설의 정도로만 알려져 있으며(Hockett 1958: 180-81) 학계에서는 부정되고 있다(Joseph and Newmeyer 2012). 문장 안에서 문법 성분을 표시하는 방법의 복잡성의 정도는 개별 언어별로 다르다는 것이 여러 학자들의 연구로 밝혀졌으며(Comrie 1992; Miestamo et al. 2008), WALS(The World Atlas of Language Structures)의 자료에 기반한 조사 결과를 보면 155개 언어 중 복잡성의 등위를 볼 때 한국어는 29위, 태국어는 132위에 올라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태국어의 언어학적 복잡성 지표가 낮게 나타나는 것은 태국어가 고립어(Isolating Language)라는 점에 상당부분 기인한다 하겠다. 교착어(Agglutinating Language)인 한국어와 달리 태국어는 어형의 변화가 없는 고립어로써, 시제, 법, 태 등 문장 내에서의 다양한 문법적 관계가 동사의 변화가 아닌 조동사, 어순 등 다른 요소를 통해 구현된다. 이러한 차이점 외에도 태국어와 한국어는 다양한 차이점을 갖고 있다. 즉, 한국어는 SOV어순을 갖고, 핵후치언어로 후치사를 사용하며, 비성조언어인데 반해 태국어는 SVO의 어순을 갖고, 핵전치언어로 전치사를 사용하며 5성조를 갖는 언어다. 반면 공통점으로는 분류사를 사용한다는 점과 다수의 차용 어휘가 있는 점으로써 한국어는 중국어에서, 태국어는 팔리어, 산스크리트어 및 크메르어 등에서 많은 어휘를 차용했다.

이렇게 차이점이 적지 않은 두 언어가 전치사와 후치사라는 서로 다른 체계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그 의미와 기능, 양상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차이점보다 더 많다는 점은 흥미롭다. 특히 그 문법화의 양상에 있어 보이는 형식을 넘어서 다양한 공통점은 인간보편성을 방증하는 인지언어학의 기본전제와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후치사와 태국어의 전치사 체계의 공식적 양상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한다. 또한 범언어적인 격/부치사 체계의 인벤토리에 따라 대응표현을 확인하고, 가능한 경우 어원을 확인하여 통시적인 문법화 과정의 양상을 들여다보려 하였다. 그러나 단일항목의 문법화도 통상 다중의 기제에 의해 통시적으로 매우 복잡한 변화과정을 겪는 것임을 고려할 때 본 연

구에서처럼 두 언어의 부치사 전체 인벤토리를 비교 분석하는 일은 두 언어의 부치사 체계의 총체적인 모습을 윤곽으로 파악하는 수준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 비록 개별항목들의 문법화 과정의 세밀한 분석은 제시되지 못하였으나, 계통론적으로, 유형론적으로 매우 다른 두 언어에서 부치사라 불리는 동일한 문법체계의 문법화 과정을 큰 틀에서 비교 분석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연구 목표를 가지고, 본 연구의 2절은 이론적 배경으로서 격과 부치사에 대하여 살펴보고, 3절에서는 한국어와 태국어의 부치사 문법화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를 본격적으로 서술하며, 4절에서는 이론적 함의를 요약정리하겠다.

## 2. 이론적 배경 : 격과 부치사

격(case)은 “의존적인 명사가 그 핵과 맺고 있는 관계의 유형을 표시하는 체계(a system of marking dependent nouns for the type of relationship they bear to their heads)”(Blake 2004: 1)로 정의된다. 즉 명사구가 절 단위에서 동사와 맺고 있는 관계, 또는 구 단위에서 명사구가 전치사, 후치사 또는 다른 명사구와 맺고 있는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격이다.

격의 실현 방식은 굴절, 형태론적 격표지, 어순, 부치사(전치사, 후치사) 등으로 다양하며 언어마다 사용하는 실현 방식 역시 다양하다. 이 중 부치사는 명사로 하여금 문장 내에서 다양한 문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문법 표지 가운데 특히 형태적 층위의 단어 또는 이에 준하는 표현들을 부치사(adposition)라고 부른다(이기갑 2005: 608). 언어에서의 부치사의 사용과 그 언어의 어순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Greenberg(1966)에서는 SOV, 즉 한국어와 같이 [주어-목적어-동사]의 어순을 갖는 언어에서는 대부분 후치사를 사용하고, 영어나 태국어와 같이 SVO[주어-동사-목적어]의 어순을 갖는 언어에서는 대부분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이성하 2016: 94에서 재인용). 이는 언어가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인 핵(head)과 의존어(dependent) 사이의 어순을 일관되게 유지하려는 경향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문장에서 핵인 서술어와 의존어인 목적어의 어순과 부합하여 부치사의 위치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그러한 위치 관계가 절대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아님이 Heine(2004)의 아프리카 언어를 대

상으로 한 조사에서 밝혀진 바 있다(이기갑 2005: 610에서 재인용).

격의 종류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분류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Lehmann (2004: 1845-51), Sylak-Glassman 외(2015: 83), Blake(2004)에서 제시된 이론에 근거하여 다음 3개 영역/유형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1) a. **문법격(grammatical case)**: [통사적 논항]

주격(nominative), 대격(accusative), 여격(dative), 속격(genitive), 절대격(absolute), 능격(ergative) 등

b. **위치격(local case)**: [두 개체 상호간의 위치적 관계]

ablative(~로부터, from), aessive(~위에, on), adelative(~로부터, from), allative(~로, to), delative(~로부터, off), destinative(~를 향해, to), directional(~방향으로, toward), illative(~안으로, into), inessive(~안에, inside), locative(~에, at/in), mediative(~중간에, between), perlative(~을 통해, through), postessive(~뒤에, behind), prolative(~을 따라, along), subessive(~밑에/아래, under), superessive(~위에, above), terminative (~까지, up to) 등

c. **비위치격(non-local case)**: [사건에 대한 논항의 관계]

benefactive(~을 위해, for), comitative(~와 함께, with), equative(~처럼, like), instrumental(~로, with), motivative(~로, by), partitive(~의, of), referentive(~에 대해, about), vocative(~여/야/아, x) 등

한편 한국어에는 그 외 정보구조표지(information structuring markers; focus, topic, etc.), 등급표지(scalarity markers; extreme example, tepidity, surprise, etc.)가 다수 있다.<sup>1)</sup> 일부 학자들은 통사적 기준에 의해 격의 기능과 부치사의 기능을 엄격하게 분리하기도 하나 이 두 가지 범주는 개념적으로 분명하게 나누어지지 않는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격표지와 부치사를 통합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1) 한국어의 경우에는 문법 범주들이 다른 언어에서 표시하는 기본 문법 개념 이외에도 다양한 주관적, 심리태도적 개념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른바 ‘의미적으로 정교한 문법범주’(semantically elaborate grammatical category; Kuteva 2009)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의 문법범주에 대한 논의는 세분하는 정도에 따라 그 기능이 단순하거나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 3. 한국어와 태국어의 부치사 문법화 비교분석

#### 3.1 공시적 격/후치사 체계 개관

한국어와 태국어 부치사의 문법화에 대하여 분석하기 전에 두 언어의 공시적인 격과 부치사의 체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범언어적으로 사용되는 격 범주들을 기준으로 한국어와 태국어의 부치사 표지들을 목록화하였으며 이 77개 항목의 목록은 <부록>에 표시한 바와 같다.<sup>2)</sup> 이들 비교를 통해 한국어와 태국어의 공시적인 부치사 체계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한국어와 태국어는 공통적으로 문법격과 위치격, 비위치격 표지들이 발달하여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오랜 역사를 가진 형태들로 어원이나 그 발달과정이 밝혀지지 않은 것들도 있으며, 일부는 아직도 어원의 의미를 유지하고 있어 부치사의 어원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 특히 태국어의 경우에는 고립어적인 유형론적 특징에 따라 형태의 변화가 적어 어원이나 어원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다. 이러한 형태적 보수성은 해당 형태의 품사적 지위에 대해 보수적인 판단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어 특정 문법형태를 분석함에 있어서 문법화된 이차적 품사(부치사 등)의 지위를 부여하는 대신 어원적인 일차적 품사(동사, 명사 등)의 지위를 부여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문법 분석의 보수적 경향성은 중국어의 경우에도 자주 발견되며 고립어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파악된다. 이에 비해, 교착어인 한국어의 경우에는 다수의 이차적 범주에 속하는 언어형태들이 교착된 문법형태소군을 이루게 되고 이들 사이의 개념적 응집성이 강해지는 경향과, 사용빈도 상승에 따른 발성 단순화 경향성이 결합하여 새로운 문법형

2) <부록>의 목록에 포함된 부치사의 선정에 있어서는 형태적으로 단순부치사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단순부치사와 복합부치사의 경계점에 있어서는 통상 부치사로서 범주 지위가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 항목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고, 형태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의미적으로도 어휘적 요소를 강하게 가지고 있어 기능은 부치사의 개념에 근접하나 통상 통사적 구문으로 인정될만한 항목은 배제하였다. 한편 태국어 부치사 자료의 경우 주로 의미를 기준으로 대응 어휘를 찾아 대입한 것으로 이 중에는 태국어 전통문법에서 아직 전치사로 인정되지 않는 일부 어휘항목도 포함되어 있다. 모든 언어의 기술에 있어서, 형태적으로 단순하지 않은 부치사의 경우에는 통사적 구문과 쉽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문법적 지위에 대한 판단에 논란이 있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태들이 만들어지게 하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오랜 역사를 가진 형태소의 경우 어원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진다.

두 언어의 부치사 체계를 비교해 보면, 한국어는 모든 문법격이 부치사(격표지)에 의해 표시되는 데 반해, 태국어의 경우에는 주격과 대격은 문법적 표지가 없이 어순에 의해 표시된다. 또한 위치를 나타내는 다양한 위치격 표지들과 전통적인 비위치격 표지들도 두 언어 모두에 발달되어 있으며, 일부 위치격 표지들은 비위치격 표지들과 동형인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공간적 위치 관계의 개념이 비위치적인 관계의 개념으로 확장된 예로 볼 수 있다.

또한 범언어적으로 세분화된 격 개념들이 동일한 문법표지로 표시되는 경우도 다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문법표지의 기능 일반화에 따른 현상으로 문법화에 자주 동반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두 언어에는 문법격, 위치격, 비위치격 표지들 이외에도 다양한 부류의 부치사류가 발달되었는데 이들은 사건에 대한 논항의 관계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비위치격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형태로, ‘초점’ ‘열거’ ‘주제’ ‘의외성’ 등 다양한 개념을 나타내는 부치사들이다.

### 3.2 한국어와 태국어의 부치사 문법화 양상 비교

본 절에서는 한국어 후치사와 태국어 전치사의 문법화 양상과 관련 예시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어 후치사의 문법화의 예시를 어원 품사별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한국어 부치사의 문법화 예시

부치사	원 품사	어원어
명사 → 부치사		
1	-(의) 가운데(에)	가운데
2	-까지	가장(자리)
3	-(의) 곁에	곁
4	-(와) 함께	한 곁(곶)
5	-한데(서/로)	한 데(곶)
6	-동안	동안

7	-의) 뒤에	명사	뒤
8	-때문에	명사	때문
9	-밑에(서)/으로	명사	밑
10	-밖에(서)/으로	명사	밖
11	-사이에/새에/사이로	명사	사이/새
12	-아래(서)/로	명사	아래
13	-안에(서)/으로	명사	안
14	-앞에	명사	앞
15	-옆에	명사	옆
16	-오른쪽에	명사	오른쪽
17	-왼쪽에	명사	왼쪽
18	-위에(서)/로	명사	위
19	-쯤에	명사	즈음

## 동사(형용사) → 부치사

1	-가까이	동사	가깝다
2	-(을) 가로질러	동사	가로지르다
3	-(을) 갖고	동사	가지다
4	-같이	동사	같다
5	-거슬러	동사	거스르다
6	-계서	동사	계시다
7	-너머	동사	넘다
8	-에다가	동사	다그다
9	-더러	동사	다리다 (데리다)
10	-대로	동사	답다
11	-대고	동사	대다
12	-(와) 더불어	동사	더붙다 (더부르다)
13	-(을) 따라	동사	따르다
14	-말고	동사	말다
15	-보고	동사	보다
16	-부터	동사	붙다
17	-로써	동사	쓰다
18	-에 앞서	동사	앞서다
19	-없이	동사	없다



20	-에 이어	동사	있다
21	-에서	동사	있다/이시다
22	-하고	동사	하다
한자어 → 부치사 (일부)			
1	-간에		간(間)
2	-(의) 근처에		근처(近處)
3	-을 기해		기(基)
4	-상에		상(上)
5	-전에		전(前)
6	-중에		중(中)
7	-통해		통(通)
8	-(을/로) 향해		향(向)
9	-후에		후(後)
10	-위하여/위해		위(爲)
11	-에 의해		의(依)
12	-로 인해		인(因)
13	-(을) 제하고		제(除)
14	-(을) 제외하고		제외(除外)
15	-처럼		체(體)
16	-에 준해		준(準)

한편, 태국어의 격전치사와 부치사의 문법화 예들을 어원의 품사에 따라 분류해 보면 <표 2>와 같다. 어원어의 품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별도의 항목으로 묶어 처리하였다.

<표 2> 태국어 부치사의 문법화 예시

단순 부치사		원 품사	원 뜻	부치사 뜻	
명사 → 부치사					
1	ข้าง	khâaŋ	명사	옆, 곁	옆에, 곁에
2	แถว	thăæw	명사	줄, 선	근처에
3	ของ	khǒŋ	명사	물건, 소유물	~의
4	แห่ง	hăæŋ	명사	장소, 곳	~의
5	รอบ	rǒp	명사	한바퀴	근처, 부근

6	ทาง	thaaŋ	명사	길	~쪽
7	หน้า	nâa	명사	얼굴	앞에
8	หลัง	lǎŋ	명사	등	뒤에, 위에
9	ใน	nay	명사	안	안에
10	นอก	nǎwk	명사	밖	밖에
11	ระหว่าง	ráwaàŋ	명사	사이	사이에
12	ที่	thǐi	명사	땅	~에
13	เหนือ	nǐitua	명사	위	위에
14	ใต้	tây	명사	밑	밑에
15	บน	bon	명사	위	위에
16	ล่าง	lâaŋ	명사	아래	아래에
17	กลาง	klaaŋ	명사	중간	중간에
18	ซ้าย	sáay	명사	왼쪽	왼쪽에
19	ขวา	khwǎa	명사	오른쪽	오른쪽에
20	เช่น	chên	명사	종류	~처럼
21	ตรง	troŋ	명사	정(正)	(딱, 정확히)~에

## 동사 → 부치사

1	ต่อ	rǔw	동사	잇다, 연결하다	~에, ~당(배분)
2	(ยก)เว้น	yókweén	동사	제하다, 면하다	제외하고
3	ให้	hây	동사	주다	~에게(수혜자)
4	สำหรับ	sǎmrǎp	동사	길맞다	~용으로, ~에, ~를 위한
5	เท่า	thâw	동사	(수가) 똑같다	~만큼
6	ตาม	taam	동사	따르다	~를 따라
7	เอา	?aw	동사	취하다, 갖다	~로
8	จาก	caak	동사	떠나다	~부터
9	ถึง	thǔŋŋ	동사	도착하다	~까지, ~에 관하여, ~에게
10	เป็น	pen	동사	이다	~로(되다, 변하다), ~로서
11	สู่	sùu	동사	향해가다	~로(방향)
12	เข้า	kâw	동사	들다	~로(들다)
13	ออก	?ǔwk	동사	나다	~를(나서다)
14	ขึ้น	khǔm	동사	오르다	~로(향해 올리다)
15	ลง	loŋ	동사	내리다	~로(향해 내리다)
16	ข้าม	khâam	동사	건너다	맞은편에

17	ผ่าน	phàan	동사	지나다	~을 통해
18	ทะลุ	tálú	동사	뚫다	~을 가로질러
19	เกิน	kəəŋ	동사	넘다, 지나치다	~을 넘어
20	จน	con	동사	다다르다	~까지
21	กว่า	kuàa	동사	과하다, 지나다	~보다(비교대상)
22	ตั้ง	tâŋ	동사	세우다, 서다	~씩이나
23	ยัง	yaŋ	동사	유지되다	~로(향하다)
24	ไร้	ráy	동사	없다	~가 없는
25	ปราศจาก	praasàcàak	동사	없다	~가 없는
형용사 → 부치사					
1	ใกล้	klây	형용사	가깝다	가까이, 근처에
2	เหมือน	mũuan	형용사	같다, 똑같다	~같이
3	คล้าย	khláay	형용사	비슷하다	~같이(비슷하게)
부사 → 부치사					
1	ด้วย	dũay	부사	또한, 함께	~로(수단, 도구)
2	ก่อน	kòon	부사	전에	~전에
3	เฉพาะ	chàphò?	부사	특정하게	~만
4	แค่	khæe	부사	특정하게	~뿐(겨우)
기타 → 부치사					
1	แก่	kæe	전치사?	~에게	~에게
2	เพื่อ	phũua	접속사?	위하여	~위하여
3	แต่	tæe	접속사?	그러나	~만
4	กับ / ะ	kàp / kà?	전치사?	~와	~와
5	โดย	dooy	전치사?	~로	~로(수단, 도구)

### 3.3 한국어와 태국어의 부치사 문법화의 공통점과 차이점

상기한 한국어와 태국어의 부치사 문법화 양상과 관련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두 언어 부치사의 문법화에 있어서 흥미로운 공통점과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이를 세부 항목에 따라 논의하기로 한다.

### 3.3.1 장소와 방위 모형

부치사류 중에서 가장 큰 하위범주를 이루고 있는 것은 처소표지 부치사류이며, 장소개념을 표시하는 이러한 처소표지 부치사들은 대개 신체부위(body-part)와 지표(landmark)의 두 가지 범주에서 발전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부치사 중에서 사물의 위치와 관계된 개념을 표시하는 것 중에는 사람이나 동물의 신체부위를 나타내는 단어로부터 유래한 것이 많은데 이는 범언어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의인화, 즉 [사람>사물]의 은유적 전이다(이성하 2016: 96-97).

이러한 장소 관계표현에서 한국어와 태국어에서 모두 인간형태적 모형(anthropomorphic model, Heine [1997] 2004)을 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3)</sup>

#### (2) 한국어의 장소전치사 예시

옆에: < 옆/넙 ‘옆, 옆구리’

곁에: < 곁/곁 ‘곁, 옆구리’

안에: < 안/않 ‘안, 심장, 마음’

밑에: < 밑/밑/밧 ‘가운데, 향문, 엉덩이’

뒤에: < 둔/둔/뿔/뒤 ‘뒤, 향문’

#### (3) 태국어의 장소전치사 예시

뒤에: < หลัง ‘뒤/등’

앞에: < หน้า ‘얼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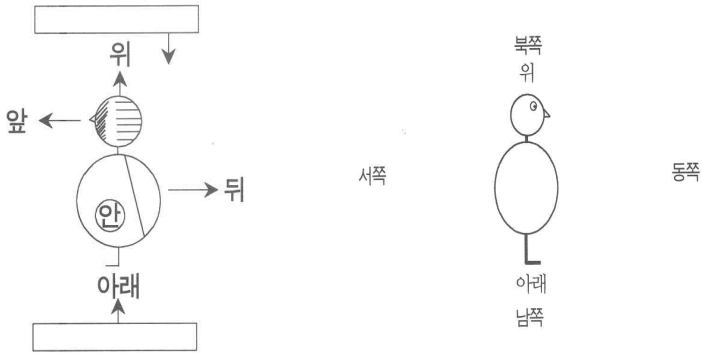
안에: < ท้อง ‘배’<sup>4)</sup>

위에: < หัว ‘머리’

밑에: < ก้น ‘엉덩이’

3) 태국어의 경우, 예외적으로 “등”이 ‘위’를 지칭하거나 “머리”가 ‘앞’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어, 그 경우는 동물형태적 모형(zoomorphic model)이 예외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태국어의 배, 머리, 엉덩이의 경우 아직 완전히 전치사로 굳어지지지는 않았으나 명사에 선행하여 전치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예시에 포함하였다.



<그림 1> 장소관계 및 방위 인지의 인간형태적 모형

방위와 관련된 문법표지의 문법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이점이 발견된다. 방위표현과 관련하여 한국어의 경우 남향 모형을 사용하는데(Narrog-Rhee 2011), 이는 범언어적으로 매우 드문 예로(Hock and Joseph 1996) 몽골, 칼미크 등 알타이어에서만 나타나는 흥미로운 현상이다(Robbeets p.c. in Narrog and Rhee 2011). 그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4) 한국어의 장소관계 및 방위 표현에서 남향모형의 예시

앞에: < 앞: 앞, 남쪽 (신증유합 1576)

뒤에: < 뒤: 뒤, 북쪽 (신증유합 1576; 훈몽자회 1527)

(cf. 왼: 왼쪽, 고대터키어 öġ ‘동쪽’, 몽골어 jegün ‘동쪽, 왼쪽’ (von Gabain 1950; 강길운 2010))

한편, 태국어의 방위표현은 역시 인간형태적 모형에 입각하여 ‘위’와 ‘밑’, ‘아래’에서 ‘북’과 ‘남’을 지칭하게 된 것으로 유추되며, 이는 지도의 영향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Brown 1983). 실제로 본 연구를 통해 연구자가 통시적 언어자료인 쑤코타이시대 비문(13C~14C) 기초자료를 검토한 결과, 쑤코타이 시대에는 방위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북쪽은 เมืองตีนนอน(잘 때 발을 두는 쪽), 남쪽은 เมืองหัวนอน(잘 때 머리를 두는 쪽)의 표현이 별도로 존재했으며, ‘위’와 ‘아래’가 ‘북’과 ‘남’을 지칭하게 된 것은 이후의 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통시적 언어 자료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3.3.2 차용어의 영향

한국어의 경우, 중국어에서 유래한 차용어휘들이 전치사화되는 경우가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 (5) 한국어의 중국어 차용어 전치사

내(內) > ~내에	외(外) > ~외에
상(上) > ~상(에)	하(下) > ~하(에)
전(前) > ~전에	후(後) > ~후(에)

흥미로운 점은 한국어의 경우 토착어와 한자어의 이중 분화체계가 있어 한자어는 주로 추상적인 관계를, 토착어는 구체적인 관계를 의미한다는 점이다(Rhee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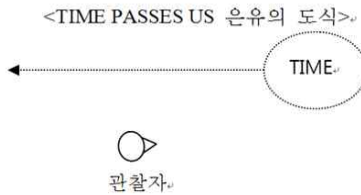
#### (6) 한국어 토착어와 한자어 후치사 의미의 이중 분화 체계

앞: 앞에, 전에	가게 앞에; 조상님 전에
뒤: 뒤에, 후에	학교 뒤에; 수업 후에
위: 위에, 상에	책상 위에; 서류 상에
아래: 아래(에), 하에	하늘 아래; 동의 하에
안: 안에, 내에	교실 안에; 기간 내에
밖: 밖에, 외에	건물 밖에; 관계자 외에
가운데: 가운데(에), 중에	공원 가운데; 농성 중에

한편 태국어의 경우 차용어인 팔리어, 산스크리트어 등은 주로 내용어에서, 격식체로 사용되는 경우에 나타나기 때문에 전치사로 사용되는 경우는 발견할 수 없었다. 중국 남부에서 남하한 것으로 알려진 타이족의 고유어휘와 중국어와의 유사성에서 기인하여 현대 태국어에서 중국어 소리와 유관한 것으로 보이는 다양한 어휘들이 있는데, 전치사 중에서도 “내(內)”와 연관이 있어 보이는 **ใน** *nay* > ‘안에’, “과(過)”와 유관한 것으로 추측되는 **กว่า** *kuàa* > ‘~보다 더’ 등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어원에 대한 통시적 연구가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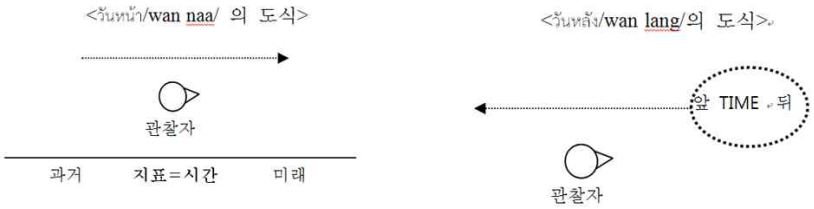
### 3.3.3 부치사와 시간 모형

부치사 중 시간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한국어와 태국어에서 흥미로운 공통점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시간 이동 모형에 대한 중의적 해석이 그것이다. 인간이 시간을 움직이는 개체에 대입하여 이해하는 것은 매우 보편적인 현상으로 시간을 개념화하는 가장 일반적 도식 중의 하나는 TIME PASSES US의 은유다.



<그림 2> 시간 은유 TIME PASSES US의 도식

이 도식은 두 가지 차원으로 해석이 가능해서 시간을 하나의 움직이는 개체로 인식하게 되면(MOVING TIME) 시간이라는 개체에 앞, 뒤라는 차원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관찰자가 먼저 만나는 앞부분이 과거, 후에 만나는 뒷부분이 미래를 나타내게 된다. 한편, 시간을 지표로 상징하고 관찰자가 시간의 축 위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면(MOVING EGO)관찰자가 먼저 지나간 곳은 과거가 되고, 관찰자가 바라보고 있는 앞 방향이 미래가 되는 것이다(박경은 2017; 박정운 1998; Rhee 1996). 따라서 GO가 Time Moving 모형을 사용하는 Lhasa, Vagunu, Catalan어의 경우에는 과거나 완료형으로 발달하고, 영어, 중국어, Hausa, Zulu, Igbo, Quechua, Tzotzil 등 여러 언어에서는 미래형으로 발달하게 된다(Rhee 1996: 285). 이와 같은 이동모형의 적용 차이를 태국어의 경우를 예시하면 <그림 3>과 같다(박경은 2017).



<그림 3> MOVING EGO 와 MOVING TIME 의 도식

이러한 두 가지 해석을 모두 수용하는 양상은 한국어와 태국어의 부치사 사용에서 볼 수 있다.

(7) 한국어와 태국어의 시간 부치사의 의미와 은유

한국어	앞으로(미래)	MOVING EGO
	뒤에(미래)	MOVING TIME
	전에(과거)	MOVING TIME
	후에(미래)	MOVING TIME
태국어	หน้า ‘얼굴’ > 앞(미래)	MOVING EGO
	หลัง ‘뒤/등’ > 뒤, 후(미래)	MOVING TIME
	ก่อน ‘전(前)’(과거)	MOVING TIME

3.3.4 어원적 특징

한국어 후치사와 태국어 전치사의 어원적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태국어의 경우 이동 동사의 사용빈도가 매우 높는데 반해 한국어는 상대적으로 이동 동사의 빈도가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의 목록에서 확인된다.

(8) 이동동사 유래 부치사 예시

한국어		
가로지르다 > 을 가로질러	따르다 > 따라, 을 따라	
넘다 > 너머	붙다 > 부터	
다그다 > 에다가	쫓다 > 조차	



태국어

따르다 &gt; 을 따라

떠나다 &gt; 부터

도착하다 &gt; 까지

향해가다 &gt; 로(방향)

들다 &gt; 로(진입)

나다 &gt; 로부터(진출)

오르다 &gt; 로(상승)

내리다 &gt; 로(하강)

건너다 &gt; 맞은편에

지나다 &gt; 을 통해

뚫다 &gt; 을 가로질러 (통과하다)

넘다 &gt; 을 넘어, 너머

다다르다 &gt; 까지

지나다 &gt; 보다(비교)

한편, 한국어의 경우 한자어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간(間), 근처(近處), 기(基), 상(上), 전(前), 중(中), 통(通), 향(向), 후(後), 위(爲), 의(依), 인(因), 제(除), 제외(除外), 체(體) 등이 후치사로 문법화된 예를 볼 수 있었다.

또한 필연적으로 어원과 기능이 일치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었으며 한국어와 태국어에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그 예는 <표 3>과 같다.

<표 3> 한국어와 태국어 부치사 어원-기능 일치 사례

한국어		태국어	
어원	부치사	어원	부치사
따르다	따라	따르다	따라
맞다, 마치다	마저	도착하다	까지, 에게
건너다	건너	건너다	맞은편에, 건너
넘다	너머	넘다	너머
같다	같이	같다	같이
가깝다	가까이	가깝다	가까이
제하다/제외하다	제외하고	제하다/면하다	제외하고
갓다	갓고	취하다/갓다	로, 갓고
사이	사이에, 간에	사이	사이에
대신	대신에	대신	대신에
한하다	한해	특정하다	만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원의 의미가 문법의 기능과 거의 일치하는 경우는 그 문법화 과정의 동기화가 직관적으로 분명한 경우들이다. 이처럼 개념 유사

성/동일성에 따른 문법화 현상은 범언어적으로 보편적인 현상 중의 하나이며, 이 동기화의 정도가 비교적 미약한 경우에도 문법화에 참여하는 구문이 선택하는 어원항목이 무작위하지 않다는 것은 이른바 어원결정가설(Source Determination Hypothesis)이나 보편경로가설(Universal Path Hypothesis) 등에 잘 드러나 있다 (Bybee et al. 1994).

### 3.3.5 유형론적 차이

전술한 바와 같이 교착어인 한국어와 고립어인 태국어의 경우 유형론적 차이점에 따른 부치사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한국어의 경우 교착어의 특징에 따라 토씨와 결합한 복합부치사로의 발달이 빈번하여 이 경우 구문에 참여하는 명사 및 동사의 형태통사적 특성이 잔존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태국어의 경우 고립어의 특징에 따라 어원어의 형태가 불변하고, 본래의 의미가 잔존하는 정도가 강하며, 어원 구문과 대비하여 문법표지가 위치상으로 변동이 없어, 부치사의 품사적 자격이 불확실한 경우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보편적 경향성은 후속 연구에서 세부 항목별로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4. 결론 및 제언

본고에서는 한국어와 태국어의 부치사 체계의 양상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분포 상의 종류와 문법화 과정에 있어서 다수의 공통점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공통점은 인간 인지의 공통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한국어의 후치사와 태국어의 전치사 체계에서는 차이점도 다수 발견되며 이는 상당 부분 유형론적 특징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한국어의 경우 문법격과 위치격이 모두 격부치사로 표시되고, 정보 구조 기능의 후치사들이 발달한 데 비해, 태국어의 경우 문법격 중 주격과 목적격은 명시적 격표지가 없으며, 기타 부류는 한국어의 격/후치사 체계와 유사한 전치사 체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태국어 부치사 체계의 공시적 양상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하면서 범언어적인 격/부치사 체계의 인벤토리에 따라 대응 표현을 확인하고, 가능한 경우 어원을 확인하여 통시적인 문법화 과정의 양상을

큰 틀에서 조망하였다. 다만 이 연구는 인벤토리 구축을 위한 부치사 비교의 기초 연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추후 상세한 검토와 정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통시적인 자료 역시 어원어를 중심으로 변화의 시점과 중점을 간략하게 비교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본 논문의 범위와 성격상 세부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제시할 수는 없으나, 계통적으로나 유형론적으로 매우 상이한 두 언어의 부치사 체계를 큰 틀에서 개괄하고 공통점 및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범주 중심의 문법화 비교연구에 기여점이 있다고 생각되며 세부적인 연구는 후속 연구에서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길운(Kang, Gil-woon). 2010. 『비교언어학적 어원사전(Comparative Linguistic Etymology Dictionary)』. 서울: 한국문화사(Seoul: Hankookmunwhasa).
- 박경은(Park, Kyung Eun). 2017. 「태국어 신체어휘 /naa/, /lang/의 문법화와 교육에서의 시사점(Grammaticalization of /naa/ - /lang/ in Thai and its Pedagogical Implication)」. 『한국태국학회논총(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Thai Studies)』 23.2:31-55.
- 박정운(Park, Jeong-Woon). 1998. 「앞으로 한 달 뒤에 만납시다: 시간의 개념적 은유(Let's Meet in a Month.: Conceptual Metaphor in Time)」. 『언어와 언어학』 23:85-110.
- 이기갑(Lee, Ki-Gap). 2005. 「부치사(Adposition)의 기능-유형론의 관점에서-(On the Functions of Adpositions: The Typological Perspective)」. 『어학연구(Language Research)』 41.3:605-33.
- 이성하(Rhee, Seongha). 2002. 「이동동사의 후치사화에 대한 형태통사적 연구(Morphosyntactic Analysis of Postpositions Grammaticalized from Verbs of Movement in Korean)」. 『언어와 언어학(Language and Linguistics)』 29:205-25.
- 이성하(Rhee, Seongha). 2016. 『문법화의 이해(Understanding Grammaticalization)』. 서울: 한국문화사(Seoul: Hankookmunwhasa).
- Blake, Barry J. 2004. *Case* (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own, Cecil H. 1983. "Where Do Cardinal Direction Terms Come from?" *Anthropological Linguistics* 25.2:121-61.

- Bybee, Joan L., William Pagliuca, and Revere Perkins. 1994. *The Evolution of Grammar: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omrie, Bernard. 1992. "Before Complexity." In *The Evolution of Human Languages*, edited by John A. Hawkins and Murray Gell-Mann, 193-211. Redwood City: Addison-Wesley.
- Gabain, Annemarie von. 1950. *Alttürkische Grammatik*. Wiesbaden: Otto Harrassowitz.
- Greenberg, Joseph H. 1966. "Some Universals of Language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Order of Meaningful Elements." In *Language Universals with Special Reference to Feature Hierarchies* (2nd ed.), edited by Joseph H. Greenberg, 73-113. The Hague: Mouton.
- Heine, Bernd. (1997) 2004. *Cognitive Foundations of Grammar*. Translated by Seongha Rhee and Hyeon-jung Ku. Seoul: Parkyijeong.
- Heine, Bernd. 2004. "Adpositions in African Languages in a Typological Perspective." Paper presented in the Language Typology Workshop at Chonnam National, South Korea, October 18-21.
- Hock, Hans Henrich, and Brian D. Joseph. 1996. *Language History, Language Change, and Language Relationship: An Introduction to Historical and Comparative Linguistics*. Berlin: Mouton de Gruyter.
- Hockett, Charles F. 1958. *A Course in Modern Linguistics*. New York: Macmillan.
- Indrambarya, Kitima. 1995. "Are There Prepositions in Thai?" In *Papers From the Third Annual Meeting of the Southeast Asian Linguistics Society*, edited by Mark Alves, 101-118. Arizona: Arizona State University, Program for Southeast Asian Studies.
- Intratrat, Charatdao. 1996. "Grammaticalization of Verbs into Prepositions in Thai." Ph.D. diss., Chulalongkorn University, Bangkok, Thailand.
- Joseph, John E., and Frederick J. Newmeyer. 2012. "'All Languages Are Equally Complex': The Rise and Fall of a Consensus." *Historiographia Linguistica* 39.2/3:341-68.
- Kuteva, Tania. 2009. Grammatical Categories and Linguistic Theory: Elaborateness in Grammar. In *Proceedings of Conference on Language Documentation and Linguistic Theory*, edited by Peter K. Austin, Oliver Bond, Monik Charette, David Nathan, and Peter Sells, 13-28. London: SOAS.
- Lehmann, Christian. 2004. Interlinear Morphemic Glossing. In *Morphologie: Handbucher*

- zur *Sprach- und Kommunikationswissenschaft*, Band 172, edited by Herbert Ernst Wiegand, 1834-57. Berlin: Walter de Gruyter.
- Miestamo, Matti, Kaius Sinnemäki, and Fred Karlsson, eds. 2008. *Language Complexity: Typology, Contact, Change*. Amsterdam: John Benjamins.
- Moravcsik, Edith A. 1978. "On the Case Marking of Objects." In *Universals of Human Language*, edited by Joseph H. Greenberg, 4 vols. Vol. 4: 249-289.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Narrog, Heiko, and Seongha Rhee. 2011. "Grammaticalization of Space in Korean and Japanese." In *Shared Grammaticalization with Special Focus on the Transeurasian Languages*, edited by Martine Robbeets and Hubert Cuyckens, 287-315. Amsterdam: John Benjamins.
- Parkvall, Mikael. 2008. "The Simplicity of Creoles in a Cross-Linguistic Perspective." In *Language Complexity: Typology, Contact, Change*, edited by Matti Miestamo, Kaius Sinnemäki, and Fred Karlsson, 265-85. Amsterdam: John Benjamins.
- Prasithrathsint, Amara. 2010. "Grammaticalization of Nouns into Prepositions in Thai." *Journal of Language and Linguistics* 28.2:68-83.
- Rhee, Seongha. 1996. "Semantics of Verbs and Grammaticalization: The Development in Korean from a Cross-Linguistic Perspective." Ph.D. diss.,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Austin, Texas.
- Rhee, Seongha. 2011. "Divergent Specialization in the Grammaticalization of Native Korean and Sino-Korean Spatio-Relational Terms." *Language and Linguistics* 50:171-202.
- Sylak-Glassman, John, Christo Kirov, Matt Post, Roger Que, and David Yarowsky. 2015. "A Universal Feature Schema for Rich Morphological Annotation and Fine-Grained Cross-lingual Part-of-Speech Tagging." In *Systems and Frameworks for Computational Morphology*, edited by Cerstin Mahlow and Michael Piotrowski, 72-93. Heidelberg: Springer.

## 부 록

## &lt;한국어와 태국어의 격/부치사 목록&gt;

분류	격/부치사	주요개념	한국어	태국어 (<어원의미>)
문법격	accusative	대격, 직접목적	을, 를	N/A
문법격	dative	여격, 간접목적	보고, 더러, 께, 한테, 에 대고	ให้ háy (< give) แก่ kàæ (< to) ให้แก่ háy kàæ (< give to)
문법격	genitive	소유격	의	ของ khǒwŋ (< property) แห่ง hǎæŋ (< land, place)
문법격	nominative	주격	이, 가, 게서	N/A
비위치격	abessive	결핍	없이, 말고, 을 제하고	แต่ tàæ (< but)□ ยกเว้น yók weén (< except) ไม่มี mây mii (< no have) ยกเว้นสำหรับ yók weén sǎm rǎp (< except for)
비위치격	approxima-tive	근접	가까이, 쪽에	ข้าง khâaŋ (< side) แถว thǎæw (< line) ใกล้ klây (< near) ติดกับ tít kàp (< attached with)
비위치격	associative	결합, 연합	가까이, 옆에, 곁에, 에 면해, 에 연해, 에 이어	ข้าง khâaŋ (< side) โดยใกล้กับ dooy klây kàp (< by near to) ใกล้ klây (< near) ติดกับ tít kàp (< attached with)
비위치격	benefactive	수혜	를 위해	ให้ háy (< give) ให้แก่ háy kàæ (< give to) เพื่อ phǔtwa สำหรับ sǎmrǎp (< to be pair of)
비위치격	caritive	결핍	없이, 말고	แต่ tàæ (< but) ยกเว้น yók weén (< except)
비위치격	comitative	수반	와, 과, 함께, 더불어, 하고	กับ kàp (< with) พร้อมกัน phrǒwm kàp (< together with, at the same time with)
비위치격	distributive	분배	마다, 씩	ต่อ tǒw (< connect)

5) 태국어 호격을 나타내는 **ด้วย** /dǔay/는 예외적으로 명사에 후행하는 후치사와 같은 형태로 쓰이며, 호격 부치사를 따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비위치격	equateive	비교	만큼, 처럼, 같이, 대로	เท่า thâw (< same (amount)) เท่ากับ thâw kâp (< same with) ตาม taam (< follow) เหมือน mǔtuan (< same)
비위치격	instrumental	도구	로, 로써, 가지고, 갖고	เอา ?aw (< take) ด้วย dǔay (< together, with) กับ kâp (< with) กะ kà? (< with)
비위치격	motivative	동기, 이유, 원인	에, 때문에, 어 놓아서, 에 의해, 로 인해	เนื่องจาก nǔttuanj càak (< caused by, related from) เนื่องมาจาก nǔttuanj maa càak (< caused by, related from)
비위치격	partitive	부분		ของ khǔwɔŋ (< property)
비위치격	privative	결핍	없이, 말고, 을 제하고	แต่ tàæ (< but) □ ยกเว้น yók wéen (< except) ไม่มี mây mii (< no have) ไร้ ráy (< without) ปราศจาก praasàcàak (< without)
비위치격	propriative	소유, 확보	을 갖고	ของ khǔwɔŋ (< property)
비위치격	referentive	관계, 대상	에 대해, 에 관해	เกี่ยวกับ kǎiut kâp (< hitch, concern) ถึง thǔŋŋ (< arrive)
비위치격	revertive	회귀, 가역	을 거슬러	ย้อน yǔwɔn (< reverse)
비위치격	similiative	유사	만큼, 처럼, 같이, 대로	คล้าย khláay (< similar) เหมือน mǔtuan (< same)
비위치격	transforma-tive	변경	로	เป็น pen (< to be)
비위치격	vocative	호격	아, 야	เอ๋ย ?ǎy 5)
위치격	ablative	탈격	에서, 부터, 에서부터, 로부터, 한테서, 을 기해	จาก càak (< leave)
위치격	addirective	방향격	로, 을 향해, 로 향해	ข้าง khâaŋ (< side, flank) สู่ sùu (< move to) ยัง yaŋ (< to)

6) 태국어 호혜, 상호격 กัน /kan/ 과 กันและกัน /kan læ kan/은 명사에 후행하며 부사와 같은 쓰임

위치격	aditive	접근격 (향해)	로, 를 향해, 로 향해	ข้าง khâaŋ (< side, flank) สู่ su (< move to) ยัง yaŋ (< to)
위치격	adelative	이격 (이탈)	부터	จาก càak (< leave)
위치격	adessive	근접격 (근접)	에, 근처에	แถว thǎæw (< line) รอบ rǔwɔp (< around) ใกล้ klây (< near) ถัดไป thàt pay (< next)
위치격	allative	향격 (방향)	로, 까지	สู่ sùu (< move to) ยัง yaŋ (< to) ทาง thaaŋ (< road, way)
위치격	antessive	전격 (앞에 있음)	앞에, 전에, 에 앞서	หน้า nǎa (< face) ก่อน kǔwɔn (< before) ก่อนที่จะ kǔwɔn-fii-cà (< before) ต่อหน้า tòw nǎa (< in front of)
위치격	apudessive	차격 (다음에 있음)	옆에, 곁에, 근처에	ข้าง khâaŋ (< side) แถว thǎæw (< line) โดยใกล้กับ dooy klây kàp (< by near to) ใกล้ klây (< near) ติดกับ ìt kàp (< attached with)
위치격	delative	강격 (위에서 아래로)	에서, 부터, 에서부터, 로부터	จาก càak (< leave)
위치격	destinative	목표격	로, 을 향해, 로 향해	สู่ sùu (< move to) ถึง thǔŋ (< arrive) ยัง yaŋ (< to) ทาง thaaŋ (< road, way)
위치격	directional	방향격	로	สู่ sùu (< move to) ยัง yaŋ (< to) ทาง thaaŋ (< road, way)
위치격	elative	분리격	로부터, 에서부터	จาก càak (< leave)
위치격	essive	태, 태격 (상황격)	동안, 적에	ใน nay (< inside) ในระหว่าง nay rá-wàang (< in between)
위치격	illative	방향격	안으로, 내로, 로	เข้า kâw (< enter) เข้าไป kâw pay (< enter) สู่ sùu (< move to)



위치격	inelative	탈내격 (밖으로)	밖으로, 로부터, 에서부터	ออก ʔòok (< out) ออกจาก ʔòok càak (< out from)
위치격	inessive	내격 (내부에)	에, 에서, 안에	ใน nay (< inside) ที่ thii (< place) ข้างใน khâaŋ nay (< ?-inside) ภายใน phaay nay (< ?-inside)
위치격	lative	이동격	로, 을 향해, 로 향해	สู่ sùu (< move to) ยัง yaŋ (< to) ทาง thaaŋ (< road, way)
위치격	locative	처격 (장소, 위치)	에, 에서	ที่ thii (< place) ใน nay (< inside)
위치격	mediative	간격 (사이에)	가운데에, 사이에, 새에, 중에, 간에	กลาง klaaŋ (< middle) ระหว่าง rá-wàaŋ (< between)
위치격	orientative	방향격	를 향해	ยัง yaŋ (< to) สู่ sùu (< move to)
위치격	perlative	통격 (건너)	가로질러, 통해	ข้าม khâam (< across) ผ่าน phaan (< pass) โดยผ่าน dooy phaan (< by passing) ทะลุ tálu (< stab, pierce)
위치격	postdirect- ive	향격 (향해)	을 향해	สู่ sùu (< move to) ยัง yaŋ (< to)
위치격	postlative	탈후격 (뒤로부터)	에서, 부터, 로부터, 에서부터	ตั้งแต่ táng tæè (< from) จาก càak (< leave)
위치격	postessive	후방격 (뒤에)	뒤에, 후에	หลัง láŋ (< back of body) หลังจาก láŋ càak ข้างหลัง khâaŋ láŋ
위치격	prolative	방편격	을 따라, 대로, 로	ตาม taam (< follow) ทาง thaaŋ (< passage) ผ่านทาง phaan taaŋ
위치격	sublative	탈하격 (아래로부터)	아래로부터, 밑으로부터	ขึ้น khuin (< up, ascend)
위치격	subessive	하격 (아래에)	아래에(서), 밑에(서), 하에(서)	ใต้ tây (< under) ล่าง láaŋ (< lower) ภายใต้ phaay tây
위치격	sublative	하향격 (아래로)	아래로, 밑으로	ลง loŋ (< down, descend) สู่ sùu (< move to)

위치격	super-directive	상향격 (위로)	에다가	N/A
위치격	superrelative	탈상격 (위로부터)	위로부터	N/A
위치격	superessive	상격 (위에)	위에, 상에, 에다가	บน bon (< on) เหนือ nǔtwa (< above) เกี่ยวกับ kiaw kàp (< hook with) ขึ้นไป khǔm pay
위치격	superlative	상향격 (넘어)	위로, 상으로, 너머	เหนือ nǔtwa (< above) เกิน kəəŋ (< excess) บน bon (< above)
위치격	terminative	착격 (종결)	까지	จน con ถึง thǔŋ (< arrive) จนถึง con thǔŋ จนกระทั่ง con krà-tháŋg
위치격	lateral-general	측격 (전체)	옆에, 곁에	ข้าง khâaŋ (< side) ข้าง ๆ khâaŋ khâaŋ ใกล้ klây (< near)
위치격	lateral-laevus	측격 (좌)	왼쪽에	ซ้าย sáay (< left) ข้างซ้าย khâaŋ sáay
위치격	lateral-dexterum	측격 (우)	오른쪽에	ขวา khwǎa (< right) ข้างขวา khâaŋ khwǎa
위치격	external	외격 (외부의)	밖에	นอก nǔwək (< outside) ภายนอกของ phaay nǔwək khǔwŋ
기타	topic	주제	은, 는, 을 두고, 을 놓고	สำหรับ sǎmràp ส่วน sùan (< part)
기타	reciprocat-ive	호혜, 상호	끼리, 간에, 사이에	กับ kàp (< with) กัน kan <sup>6)</sup> กันและกัน kan lé kan
기타	comparative	비교	보다, 에 비해	กว่า kuàa (< surpass)
기타	hypothetical topic	가상의 주제	치고	สำหรับ sǎmràp ส่วน sùan (< part)
기타	disimilative	이화, 상이	달리	ไม่เหมือน mây mǔtuan ต่างจาก taŋj càak

을 갖는다.

기타	enumerative	열거	에, 와, 과, 하며, 하고, 며, 나	บวกกับ buàk káp (< plus with)
기타	status	지위, 상태	로서	เช่น chên (< same) เป็น pen (< to be)
기타	focus	초점	만, 밖에, 뿐, 조차, 까지, 마저	กระทั่ง krà-thâŋ แม้กระทั่ง mǎeæ-krà-thâŋ
기타	mirative	의외성	커녕, 따라, 조차, 까지, 마저	แม้กระทั่ง mǎeæ-krà-thâŋ
기타	adversative	역접, 반의, 반대	에도 불구하고, 에 반해	แม้ mǎeæ แม้ว่า mǎeæ wǎa แม้แต่ mǎeæ tǎe
기타	opposite	반대로	반대쪽에, 건너편에	ตรงข้าม trong khâam
기타	additive	추가	에다가, 을 겸해, 등, 외에, 따위, 서건	บวกกับ buàk káp ตลอดจน tà-lòt con นอก(เหนือ)จาก nòk (nǔnua) càak
기타	consequitive	추종, 근거	에 따르면, 에 따라, 을 따라, 에 준해	ตาม taam (< follow) ตามที่ taam fii
기타	distantive	멀리 떨어짐	에서 떨어져(서), 을 격해	ห่างจาก háang càak
기타	substitutive	대신, 대체	대신에	แทนที่ thǎe:n fii
기타	restrictive	제한	에 한해	เฉพาะ chàphó? โดยเฉพาะ dooy chàphó?
기타	conditional	조건	의 경우에	กรณี koránii กรณีของ koránii khǔwŋ
기타	disregard	무시, 묵살	에 무관하게	โดยไม่เกี่ยวกับ dooy mây kǎu káp

박경은

(02450)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의국어대학교 아시아언어문화대학 태국어과

kyungeunpark@hufs.ac.kr

이성하

(02450)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의국어대학교 영어대학 ELLT학과

srhee@hufs.ac.kr

논문 접수 일	2018년 8월 14일
심사 완료 일	2018년 9월 5일
게재 확정 일	2018년 9월 27일